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일 시** : 2022년 5월 24일(화), 오후 7시 30분

 **장 소** : 보신각 앞 인도(서울시 종로구 종로54)

 **공동주최** : 감리교여성지도력개발원, 기독교반성폭력센터, 기독교민회, 무지개신학교, 믿는페미, 서울YWCA, 움트다, 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회, 위드유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기독교장로회 청년회 전국연합회, 한국여신학자협의회, 한국YWCA연합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민중신학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비상대책위원회, 향린공동체 성정의위원회

 **후원계좌** : 카카오뱅크 3333-23-1216553 (L O H)

 **문 의** : feministworship@gmail.com

*본 예배는 문자통역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하기 원하시는 분은 www.sharetyping.com에 접속해서 이용해주세요.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시편 119:53)

이꿈이 : 여름(무지개신학교)

타종/회중역할 : 이기쁨(서울YWCA)

찬양 : 달리, 빌리, 홀리, 커리, 엘리(기독교여민회)

안무 : 반은기(평화몸짓)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를 맞이하여 여성들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립니다. 주께서 친히 켜 주시고 밝혀주시는 불씨들입니다. 비록 작은 불씨지만, 맹렬한 분노로 외치며 진실의 불길, 정의의 불길, 연대의 불길이 일어나길 바랍니다. 불 앞에서 초가 녹듯이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이 녹습니다(시 68:2). 이 시간 불의와 폭력, 차별로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우리의 분노의 외침과 함께 녹여주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1. 타종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는 기도

2. 예배로의 초대

<파도: 여의도의 농민시위를 보며>

신경림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가
저 바다 언제까지나
잠들어 있으리라 생각했으니.
얼마나 황홀한 일인가
저 파도 일제히 일어나
아우성치고 덤벼드는 것 보면.
얼마나 신바람 나는 일인가
그 성난 물결 단번에
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
씻어 내리라 생각하면.

3. 찬송 - 여기 오소서

여기 오소서

아프리카 노래

여 기 오 소 서 내 주 여 여 기 오 소 서 내 주 여
우 는 린 자 위 해 오 소 서 우 는 린 자 위 해 오 소 서

여 기 오 소 서 내 주 여 오 주 여 오 소 서
우 는 린 자 위 해 오 소 서 오 주 여 오 소 서

4. 우리의 기도 | 유에스더(한국YWCA연합회)

*굵은 글씨로 표시된 부분은 다 같이 읽습니다. 드럼이 쿵쿵, 두 번 울리고 나면 붉은 천을 흔들며 기도문을 읽고, 발을 두 번 쿵쿵 구르거나 손뼉을 두 번 짹짹 칩니다.

다 같이 : (드럼 쿵쿵) 주님,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발구르기 쿵쿵/손뼉 짹짹)

여성을 차별하는 현실 속에서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젠더 갈등’이라는 이름으로 균형을 맞춘다며 성차별의 현실을 은폐하는 이들에게 화가 납니다. 페미니즘을 여성우월주의로 왜곡하고 약자들의 언어를 훔쳐 가 정의로운 척을 하는 이들의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공정이라는 이름으로 차별을 지속시키는 이들이 우리를 멀리합니다.

다 같이 : (드럼 쿵쿵) 주님,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발구르기 쿵쿵/손뼉 짹짹)

성폭력을 저지르고도 아무렇지 않게 거짓말하며 사죄하지 않는 가해자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위력과 위계를 사용하여 성폭력을 행하고도 떳떳하게 살고 있는 가해자들과 가해자들의 지위와 권력을 과시하는 원수들에게 화가 납니다. 사람들이 성폭력을 부정하고 무고죄를 운운할 때마다, 피해 여성을 유혹자(꽃뱀)로 비난할 때마다 우리의 영혼이 무너집니다. 여성들의 일상에서 불법촬영이 일어나고, 친밀한 관계 안에서 아내폭력, 교제살인이 일어나니, 우리가 삶을 지속하기 어렵습니다.

다 같이 : (드럼 쿵쿵) 주님,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발구르기 쿵쿵/손뼉 짹짹)

여성이라는 이유로 같은 일을 해도 임금을 똑같이 주지 않으면서 입에 발린 말을 하는 이들에게 벼락을 내려주십시오. 여성은 생계 부양자가 아니라고, 여성은 임신을 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둘 것이라고, 여성은 감정적이기 때문에 이성적인 일을 할 수 없다고, 여성은 가정을 돌보아야하기 때문에 일에 전념할 수 없다고 말하며 여성들의 존재를 낙인찍고 깔아먹습니다.

다 같이 : (드럼 쿵쿵) 주님, 내가 맹렬한 분노에 사로잡혔나이다! (발구르기 쿵쿵/손뼉 짹짹)

저들이 역사 속에서 당당히 살아 숨 쉬는 여성들의 이름을 지워버립니다. 교회의 이름으로 마녀라고 낙인찍고 화형시킵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여성들의 권리를 빼앗아 갑니다. 전쟁을 일으켜 여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강간하고 살해했습니다. 지금도 아버지의 이름으로, 가족의 이름으로 여성들의 뒀을 없애버리고 스스로 미래를 선택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 저들이 당신의 분노를 두려워하게 하소서.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성평등과 정의로운 평화를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 하신 주님,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칩니다. 언제까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거슬러 살도록 놔두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성차별의 죄를 묵인하시겠습니까? 성평등한 하나님 나라는 언제 이 땅에 도래하는 것입니까?

주님, 우리가 부르짖을 때에 응답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차별과 무시의 곤경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호소를 들어주십시오.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칠 때, 주님께서 함께 외쳐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차별과 불평등의 현실을 바꿔내고 끝내 성평등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올 것입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5. 공동찬양

*우리의 마음을 합성과 함께 파도에 담아보겠습니다. 있는 자리에서, 두 팔을 들고 붉은 천을 흔들며 합성을 질러주세요!

분노의 파도로 시작해, 찬양을 부른 후에는 승리의 파도를 만듭니다.

*찬양을 부르는 동안에는 붉은 천을 이용해 원을 그리면서 흔들어주세요.

분노의 파도 만들기 | 붉은 천을 흔들며 합성

마귀들과 싸울지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 붉은 천으로 원을 그리며 흔들기

838 마귀들과 싸울지라
— 작사: W. Steffe —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그대여 당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들과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그대여 고향치는 무리들은 흉한 적군아닌가
마귀들과 싸울지라 죄악 벗은 그대여 그주 예수 그리스도 크신 팔을 벌리고
심판 불과 멸망의 날 네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 오리라
무섭고도 두려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불들라
너를 도와 주시려고 서서 기다리시니 너 여서 나오라
영광 영광할렐루야 영광 영광할렐루야
영광 영광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우리들이 싸울 것은
새찬송가 350장

1. 우리들이 싸울 것은 험기 아니오 우리들이 싸울 것은
2. 우리들이 입은 갑옷 쇠가 아니오 우리들이 가진 검은
3. 악한 마귀제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4.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육체 아니오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 버리고
강철 아니오 하나님께 맡겨진 평화의 복음
앞서 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믿기만 하면 위태한 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죽을 영혼 살릴 것 일세 일심으로 힘써 나가세 일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최후 승리를 얻을 때 까지
천국 백성 될 것 일세

심으로써 힘써 싸우세 마귀들의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 CHORD BY PIECES AND GRACE

승리의 파도 만들기 | 붉은 천을 흔들며 합성

6. 말씀 읽기 | 민희연(장로회신학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우회)

[요한복음 4장 3~42절]

- 3 예수께서는 유대를 떠나, 다시 갈릴리로 가셨다.
- 4 그렇게 하려면,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실 수밖에 없었다.
- 5 예수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 이르셨다. 이 마을은 야곱이 아들 요셉에게 준 땅에서 가까운 곳이며,
- 6 야곱의 우물이 거기에 있었다.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피로하셔서 우물가에 앉으셨다. 때는 오정쯤이었다.
- 7 한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으러 나왔다.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마실 물을 좀 달라고 말씀하셨다.
- 8 제자들은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가서, 그 자리에 없었다.
- 9 사마리아 여자가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유대 사람인데, 어떻게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고 하십니까?" (유대 사람은 사마리아 사람과 상종하지 않기 때문이다.)

- 10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대답하셨다.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알고, 또 너에게 물을 달라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도리어 네가 그에게 청하였을 것이고, 그는 너에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 11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에게는 두레박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선생님은 어디에서 생수를 구하신다는 말입니까?"
- 12 선생님이 우리 조상 야곱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라는 말입니까? 그는 우리에게 이 우물을 주었고, 그와 그 자녀들과 그 가족까지, 다 이 우물의 물을 마셨습니다."
- 13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이 물을 마시는 사람은 다시 목마를 것이다."
- 14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은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 15 그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길으러 여기까지 나오지도 않게 해주십시오."
- 16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가서, 네 남편을 불러 오너라."
- 17 그 여자가 대답하였다. "나에게는 남편이 없습니다." 예수께서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남편이 없다고 한 말이 옳다. 너에게는, 남편이 다섯이나 있었고, 지금 같이 살고 있는 남자도 네 남편이 아니니, 바로 말하였다."
- 18 여자가 말하였다. "선생님, 내가 보니, 선생님은 예언자이십니다."
- 20 우리 조상은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선생님네 사람들은 예배드려야 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고 합니다."
- 21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여자여, 내 말을 믿어라. 너희가 아버지께, 이 산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거나, 하지 않을 때가 올 것이다."
- 22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아는 분을 예배한다. 구원은 유대 사람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다."
- 23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 지금이 바로 그 때이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 24 하나님은 영이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
- 25 여자가 예수께 말했다. "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가 오실 것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 주실 것입니다."
- 26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에게 말하고 있는 내가 그다."
- 27 이 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그 여자와 말씀을 나누시는 것을 보고 놀랐다. 그러나 예수께 "웬일이십니까?" 하거나, "어찌하여 이 여자와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까?" 하고 묻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
- 28 그 여자는 물동이를 버려 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
- 29 "내가 한 일을 모두 알아맞으신 분이 계십니다. 와서 보십시오. 그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요?"
- 30 사람들이 동네에서 나와서, 예수께로 갔다.
- 31 그러는 동안에, 제자들이 예수께, "랍비님, 잡수십시오" 하고 권하였다.
- 32 그러나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 하셨다.
- 33 제자들은 "누가 잡수실 것을 가져다 드렸을까?" 하고 서로 말하였다.
- 34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고, 그분의 일을 이루는 것이다."
- 35 너희는 녁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된다고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눈을 들어서 밭을 보아라. 이미 곡식이 익어서, 거둘 때가 되었다."
- 36 추수하는 사람은 품삯을 받으며,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거두어들인다. 그리하면 씨를 뿌리는 사람과 추수하는 사람이 함께 기뻐할 것이다."

- 37 그러므로 '한 사람은 심고, 한 사람은 거둔다'는 말이 옳다.
- 38 나는 너희를 보내서,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것을 거두게 하였다. 수고는 남들이 하였는데, 너희는 그들의 수고의 결실에 참여하게 된 것이다."
- 39 그 동네에서 많은 사마리아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 그것은 그 여자가, 자기가 한 일을 예수께서 다 알아맞히셨다고 증언하였기 때문이다.
- 40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머무시기를 청하므로, 예수께서는 이틀 동안 거기에 머무르셨다.
- 41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서, 믿게 되었다.
- 42 그들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우리가 믿는 것은, 이제 당신의 말 때문만은 아니요. 우리가 그 말씀을 직접 들어보고, 이 분이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심을 알았기 때문이오."

7. 특송 | 달리, 홀리(기독교여민회)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 안혜경(Meena 작사, 최정배 작곡)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오- 형제여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니
나는 무지의 문을 열었고	오 형제여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가지 않으리라
나는 차별과 폭력에 영원한 작별을 고하였다	
나는 깨어난 여성이다	- 간주 -
분노가 나에게 힘을 주었고	
불타버린 마을들이 적을 향한 증오로 나를 채웠다	오 형제여 나는 예전의 내가 아니니
나를 더 이상 약하다 힘없다 말아라	오- 형제여 나는 내 길을 찾았고 결코 되돌아 가지 않으리라
나 온 힘 다해 이 땅의 자유의 길 걸으니	
나의 목소리는 여-기 그대들과 하나요	<small>*아프간 여성단체 RAWA(아프간여성혁명연합)의 지도자 미나(Meena)(1987년 이슬람 원리주의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암살당했다)가 남긴 시에 곡을 붙임.</small>
나의 이 주먹도 그대들과 함께 쥐어져 있네	

8. 말씀 펴기 | “이미 시작된 하나님나라” 백찬양(향린교회)

9. 성찬

공동 집례 | 김수산나(한국여신학자협의회), 이영분(기독교여민회)

분병 분잔 | 바름, 바다(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여학생회), 박동녕(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김석원(한신대 신대원 민중신학회)

■성만찬 초대와 응답

집례자 1 : 누구든지 오십시오. 주님께서서는 절망과 분노로 타오르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십니다. 오랫동안 외면당하고 멸시당
해왔던 우리의 이야기가 더는 숨겨지지 않을 것입니다. 분노를 던고 함께 일어서는 연대의 자리에 초대합니다.

집례자 2 : 이 성찬을 통해 새로운 힘으로 증언합니다.

회 중 : 고통당하는 자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의 길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성만찬 제정사

집례자 1 : 주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예수께서는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드리고 축복하신 후에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드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주는 내 몸입니다.”

집례자 2 : 또 식사 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드리고 축복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드십시오. 이것은 여러분과 많은 이들의 죄의 용서를 위해 흘리는 새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것을 행하십시오”

회 중 : 억눌리고 호소할 길 없는 우리를 부르신 그 사랑에 감사하며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성령임재의 기원

집례자 1 : 모두 빵과 포도주를 향해 마음을 모아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의 하나님, 불같은 성령으로 임재하셔서 이 빵과 포도주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회 중 : 성찬에 참여하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그를 본받아 정의와 생명과 평화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의 기도(여성들의 주기-도문)

집례자 1 : 다 함께 여성들의 주기도문을 낭독합니다.

회 중 : 주기도문

우리 하나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살피시는 분!

우리를 통하여 당신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으니,

당신의 뜻에 우리의 삶이 기억되고

우리의 삶에 당신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오늘날 당신의 은총이 깃든 일용할 양식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빼앗기지 않게 지켜주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양식을 욕심내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용서하기 위해

죄지은 자가 자신의 잘못을 바로 알아

진실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기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넘어짐을 작은 자의 탓으로 돌리지 않게 하시고,

여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존재, 유혹하는 존재라고 여기는

뿌리 깊은 혐오와 차별 속에서 우리를 속히 구하여 주십시오.

차별 없는 나라와 주변으로부터의 권세, 평화의 영광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하나님께 영원히 있습니다. 아멘.

* 강남역여성성희롱범죄5주기 여성주의연합예배에서 제안한 '여성들의 주기-도문'입니다.

■분명례

집례자 1 : 우리를 위해 상하고 찢기신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회 중 : 아멘

집례자 2 :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입니다.

회 중 : 아멘

다 같이 :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폭력과 차별에 맞선 예수의 삶과 죽음을,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기억하고 선포합니다. 아멘

■성찬의 식탁으로 (작사/작곡: 이지음)

성 찬 의 식 탁 으 로 주 님 이 초 대 하 -
 네 어 떤 차 별 도 - 없 이
 누 구 나 오 라 - 하 시 - 네 - 그
 떡 과 잔 으 로 하 나 되 어 서 - 그
 몸 과 보 혈 로 한 몸 되 어 서 -
 함 께 먹 고 또 함 께 마 시 며 주 안 에 함 께 살 - 자 -
 서 로 섬 겨 필 요 를 채 우 고 그 나 라 함 께 가 - 자 함 께 가
 자 -

■감사의 기도

집례자 1 : 우리는 분노하고 탄식하지만, 이 힘으로 다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목소리를 냅니다.

회 중 : 주님, 우리가 여기 함께 모여 있습니다. 너무나도 견고해서 영영 부서지지 않을 것만 같은 가부장제와 성차별, 우리의 언어를 삼켜버리는 백래시, 자주 은폐되고 없던 일로 치부되는 성폭력, 이 모든 것에 휩쓸리지 않고 우리가 새로운 힘으로 서로를 지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집례자 2 : 그들의 불은 존재를 소멸시키지만, 우리의 불은 생명의 불입니다. 여기에 불씨들이 모여 있습니다.

회 중 : 우리는 새 힘을 피워내며 파괴하지 않고 살리는 선택을 할 것입니다. 우리의 불은 마침내 불의한 것을 태워버릴 것입니다.

집례자 1 : 예수께서는 힘없는 이들을 착취하는 정치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에 마땅히 드러내야 할 분노를 드러내시며 가장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진 이들을 위로하셨습니다.

회 중 : 우리도 부당한 폭력과 차별에 마땅한 분노를 참지 않으며 지쳐 있는 서로를 일으켜 세우고, 다시 한 걸음 나아갑니다.

다 같이 : 아멘, 우리로 하여금 폭력과 불의, 죽음과 고통으로 가득 찬 이 사회에서 살리고 살려내는 일꾼으로 세우셔서 그 일에 온전히 정성을 다하게 하옵소서.

10. 결단의 찬양

우리는 복이 있다(작사/작곡: 애경)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에
그분의 품에 안긴다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우리곁에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머무신다

우리 모습 그대로 만족할 때에
우리는 당당한 주인이 된다
의에 주리고 목마를 때에
우리는 배부를 것이다

평화를 위해 일할 때에
그분의 자녀라 불린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을 때에
그분의 나라에 깊이 들어간다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우리곁에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머무신다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우리곁에
우리는 복이 있다
그분은 머무신다

남을 긍휼히 여길 때에
그분의 돌봄을 받는다
마음이 깨끗할 때에
그분을 볼 수 있다

벼랑 끝에 서 있을 때에
그분의 다스림은 커진다
우리 모습 그대로 만족할 때에
우리는 주인이 된다

13. 축도 | 전수희(옴트다) *모두 일어나서

우리보다 앞서 세상의 불의와 폭력, 차별에 맞서 변혁을 일으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주의 법을 따르지 않는 악인들에 의해 절망한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서로에 대한 혐오를 멈추고, 사랑하며 살아가도록 진실의 불길, 정의의 불길, 연대의 불길을 일으키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맹렬한 분노로 외치며 성 평등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연대하는 이들과 각자의 자리에서 생명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애쓰며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14. 함께 부르는 노래

부흥 2022(원곡: 고희원/개사: 여성주의 연합예배)

*노래를 한 번 부릅니다. 간주 이후에는 부흥의 불길/ 정의의 강물/ 연대의 바람 중 되고 싶은 것을 정해서 걸어다니다, 연대하고 싶은 사람과 천으로 연결해보세요.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 이땅흔들며 임 하소서 -

차별과 폭력 죄 악 에 무너진 - 우리 가슴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 하늘 가르고 임 하소서 -

거룩한 불꽃 하늘로 서 임 하사 -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 타오르게 하소서 - - 진리의 말씀 아담새 흥겨 하소서

정의의 강물 - 흐르게 하소서 - - 연대의 바람 - 이땅 가득 불어 와


새로운 - 힘으로 연대한 우리 평등 세상 위해 이 제 일 어 나

절망을 - 치유하 며 행진하는 여 성의 새날을 주-소서

꺼지지 않는 불씨들의 이야기(ft. 장작)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불씨들의 이야기

#장작헌금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장작헌금 이야기 1



태초에 불씨들이 있었다.
하나님 보시기에 그 불씨들이 보기 좋았다.
어떤 불씨는 추운 곳에 온기를 더했다.
어떤 불씨는 설익은 밥을 고슬하게 만들어 더불어 함께 나누어 먹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장작헌금 이야기 2



그러나 어떤 불씨는 큰 불이 되고 싶었다.
나누기 보다 지배하고 싶었다.
따뜻함으로 서로를 감싸안기보다 뜨겁게 타오름으로 다른 불씨를 소멸하고 싶었다.
그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장작헌금 이야기 3



그 불씨는 몸집을 키우기 위해 여러 장작들을 소집했다.
차별의 장작을 통해 존재 간의 서열을 매겼다.
폭력의 장작을 통해 정복하고 지배했다.
여성혐오의 장작을 통해 여성의 목소리를 지우고 왜곡했다.
백래시의 장작을 통해 소수자들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었다.
차별과 폭력, 혐오의 장작을 먹고 산 불씨는 생명을 소멸하고 삼키는 불이 되었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장작헌금 이야기 4



하나님이 심히 슬피하셨다.
하나님이 통곡하고 애통하며 말씀하셨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나를 위해 대신하여 생명의 불씨가 되어 갈 것인가?"
(이사야6,8)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장작헌금 이야기 5



그 때, 남아있는 불씨들이 대답하였다.
"주어, 제가 여기 있나이다.
저를 보내어주소서."
(이사야6,9)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장작헌금 이야기 6




여기, 우리, 보내심을 받은 불씨들이 모여있다.
끊임없이 기억하며, 끈질기게 버틴다.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를 추모하며 우리는 맹렬한 분노로 외친다!

차별과 폭력, 혐오와 백래시는 더 이상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고!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장작헌금 이야기 7


여전히 우리는 작은 불씨이다.
그러나 우리의 불씨는 생명의 소멸이 아닌, 생명을 살리며, 서로를 세우는 불씨가 될 것이다.



불씨들은 이미 모여있습니다.
우리에게 타오를 장작이 필요합니다.
성평등의 장작, 평화의 장작, 연대의 장작, 신뢰의 장작, 사랑의 장작, 소망의 장작, 도전의 장작, 기억의 장작....

강남역 여성혐오범죄 6주기 여성주의 연합예배
"우리가 맹렬한 분노로 외치나니"

장작헌금 이야기 8



기꺼이, 우리 불씨들의 장작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에게겐 여러분이 보내주시는 장작이 필요합니다.
함께 더불어 타오름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우리의 분노는 생명을 살릴 것입니다.

🔥 평등한 하나님나라를 위해 장작이 되어주신 분들 🔥

🍳 장작헌금 🍳

평화장작(이민지), 성평등장작김효정, 장작/유에스더, 평등장작(배이화), 사랑장작이한빛, 연대장작배승연, 연대의장작김동진, 기억김재원, 사랑장작(최규희), 연대장작-남궁수진, 소망의장작. 김은정, 희망장작김복희, 소망장작장옥수, 송기훈장작헌금, 평등장작, 장작 최소영, 용기장작(폴짝)

✨ 일반후원 ✨

Stomp!, 정혜진, 고난함께, 새민족교회, 이보영, 최은영, 크리스찬아카데미, 최지원, 평화교회연구소, 김혜인, 서울YWCA, 전수희, 유은진, 강하니, 제제, 이유리

🔥 예배가 끝난 이후에도 불씨가 이어질 수 있도록 함께해주세요 🔥

카카오뱅크 3333-23-1216553 (L O H)

🔥 많은 사람이 불씨를 볼 수 있도록 예배 후기를 남겨주세요 🔥

#강남역_여성혐오범죄_6주기_여성주의_연합예배

#우리가_맹렬한_분노로_외치나니

#우리의_분노는_생명을_살린다

#이미_시작된_하나님나라